성 박소현의 섹.시.토.크

오선생은 언제 오는가?

아내에게 남편은 첫 남자였다. 스무 살 나이에 복학생이던 남편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해,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스물넷에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 덕분에 싱글 친구도 적잖은 나이에 그녀는 벌써 두 아이의 학부형이다.

남편은 점잖고 성실한 남자였기에 살면서 딱히 불만을 가져 본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너무 점잖고 성실하다 보니 특별한 재미가 없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잠자리에서도 남편은 점잖고 성실하게 굴었다. 점잖게 키스하고 점잖게 가슴 만지고 점잖게 옷을 벗겼다. 그런데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잠자리에서만큼은 점잖은 것과 성실한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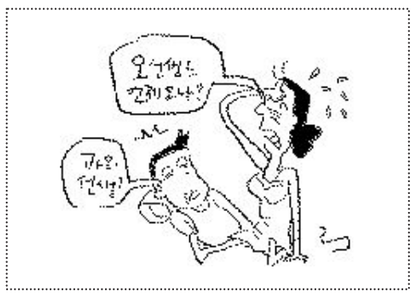
직장에서 성실하면 진급을 하고 월급이 오르는 것처럼 잠자리에서도 정말 성실하다면 그만큼의 효과가 와야 했다. 그런데 아내는 결과 혹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과 혹은 효과의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오르가슴'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한테 문제가 있을지 몰라. 불감증인지도 모르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불감증이라 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어쩌다 좀 야한 영화를 보다 흥분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며 흥분하는 몸이, 남편과의 섹스에서는 그만큼도 흥분하지 못하니 그게 문제였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동창들과 다시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부부관계에 또 한번 회의를 품게 되었다. 한번은 한 친구가 어디



서 듣고 왔는지 결혼한 여자들의 40%가 오르가슴을 느껴본 적이 없다며 안됐다는 듯 말했는데, 그녀는 속으로 '어머, 그럼 60%나 오르가슴을 느껴봤단 말이야?' 하며 깜짝 놀라고 말았다.

물론 자신도 그 60%에 속하는 척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어지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저절로 기가 죽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할 때마다 '신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싶다니까."

신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정말 궁금했다.

"오선생이 오면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오르가슴을 오선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다.

> 내가 불감증이라고?
> 야한 영화 볼 땐 흥분되는데
> 점잖게 키스하고 애무하는 남편
> 오선생 만나기는 영영…

"진짜 별이 보인다니까."

"나는 세포분열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한번 하고나면 피부가 매끈해 져."

그녀는 오르가슴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어색하게 맞장구만 칠 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늦어진다는 남편을 기다리며,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뿐이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도 억울하지만, 어쩌면 죽을 때까지 느껴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 갑자기 사는 게 다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빈 종이 위에 자신도 모르게 '오선생'이라고 쓰고는 '오선생은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하고 낙서를 했다. 남편은 오선생을 만났을까? 오선생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나한테 문제가 있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초인종이 울렸다.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선 남편은 낙서에 눈길을 주더니 한참을 들여다본다. 그녀는 속이 뜨끔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참에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해 볼 수 있겠다는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낙서를 읽은 남편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애들 과외 선생님 바꾸려고? 오선생이 실력이 좋은가 보지?"

힘이 쭉 빠진 그녀는 볼멘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좋지, 아주 끝내주지.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연애칼럼 니스트〉

리빙 센스

오이 초무침 만들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부쩍 입맛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콤달콤 오이 초무침으로 입맛을 돋우어 볼까요?

〈오이 1개, 양파 1/5, 소금 0.5작은술,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파 1큰술, 깨소금 0.5큰술, 다마늘 1작은술, 참기름 조금〉

①오이는 반으로 갈라 먹기 좋은 굵기로 어슷하게 썰고, 양파도 같은 굵기로 채 썰어 놓는다.

②큰 그릇에 오이와 양파를 담고 소금, 식초, 설탕을 넣어 10분 정도 간이 배도록 둔다.

③준비된 재료에 고춧가루, 다진마늘, 다진파,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살짝 버무려준다.

④입맛에 따라 참기름을 조금 넣는 것도 좋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음 4월 5일 己酉)

子 36년생 지루한 시간은 지나고 기쁨의 시간이 온다. 48년생 미운 사람이 보이나 나에게 도움을 준다. 60년생 자식의 친구들도 살펴봐야 좋을 듯 하다. 72년생 이성이 다가오나 좋은 인연이 아니다. 84년생 좋은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22, 16

丑 37년생 분수를 지키면 흉한 일은 피하리라. 49년생 작은 병도 잘 살펴봐야 큰 병을 예방하리라. 61년생 신중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73년생 인생의 방향에 큰 변화의 기회가 생긴다. 85년생 여유 있게 보내면 기회는 속히 온다. 행운의 숫자 : 04, 44

寅 38년생 흉한 일과 길한 일이 있지만 길한 편이다. 50년생 마무리를 잘하라 10%로 부족이 90%를 앗아간다. 62년생 협력자는 나타나지만 큰 도움은 못준다. 74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2, 43

卯 39년생 속과 겉이 다른 일이 생기기니 차분하게 살펴야 좋으리라. 51년생 놀랄 일은 있으나 안심해도 된다. 63년생 해묵은 감정을 버리면 새로운 정도 생기리라. 75년생 직장에서 처신만 조심하면 인기가 오른다. 행운의 숫자 : 19, 31

辰 40년생 늦은 시간에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멋을 내보라. 52년생 집에서는 말을 직장에서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리라. 64년생 초고는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6년생 애로가 발생하니 꼼꼼하게 살펴라. 행운의 숫자 : 10, 42

巳 41년생 눈물과 웃음이 있으나 나중에는 웃는다. 53년생 과도한 욕심이 없는 한 평안하다. 65년생 절대로 친구와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7년생 잘못 궨 단추가 끝까지 속 썩힌다. 행운의 숫자 : 15, 33

午 42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54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추진하라. 66년생 친구 같은 부자지간의 시간을 가져라. 78년생 남여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만나라. 행운의 숫자 : 13, 41

未 43년생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살펴야 할 때이다. 55년생 정면승부보다는 우회의 공격이 효과적이다. 67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79년생 삼사일언하면 악신도 피해간다. 행운의 숫자 : 2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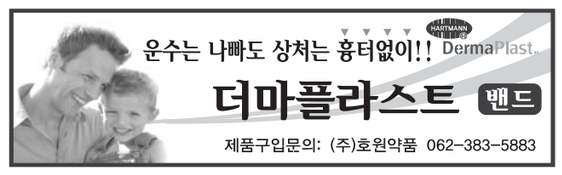
申 44년생 힘의 안배를 고려하면 대고는 없으리라. 56년생 자신의 재주보다는 노력을 집중하면 실패는 없다. 68년생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대고가 예상된다. 80년생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행운의 숫자 : 20, 39

酉 45년생 혹시 하는 기대는 버리고 뜻을 분명하게 하라. 57년생 아들과 딸의 고민을 알아보라. 69년생 부부의 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생긴다. 81년생 혼자서 바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행운의 숫자 : 24, 27

戌 46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58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했던 일들이 잘 풀려간다. 70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82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8, 32

亥 47년생 쌓아온 명성이 자기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59년생 시비 구설수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발생한다. 71년생 모르는 사람과 시비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83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12, 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어버이날 앞둔 수학여행 참사 네티즌 애도

가정의 달 5월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연이어 찾아오면서 이에 대한 검색어도 인기를 끌었다.

많은 네티즌은 어린이날 특선영화, 선물, 행사 등을 검색하며 미래의 희망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정성이 담긴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네티즌들은 카네이션 만드는 법, 장미 접는 법을 인기 검색어에 올려 놓기도 했다.

어린이날과 석가 탄신일이 월요일에 들면서 모처럼 맞은 5월의 황금 연휴를 즐기기 위해 각종 여행지를 검색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네티즌의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번주 평온한 5월과는 거리가 먼 사건, 사고들이 발생해 네티즌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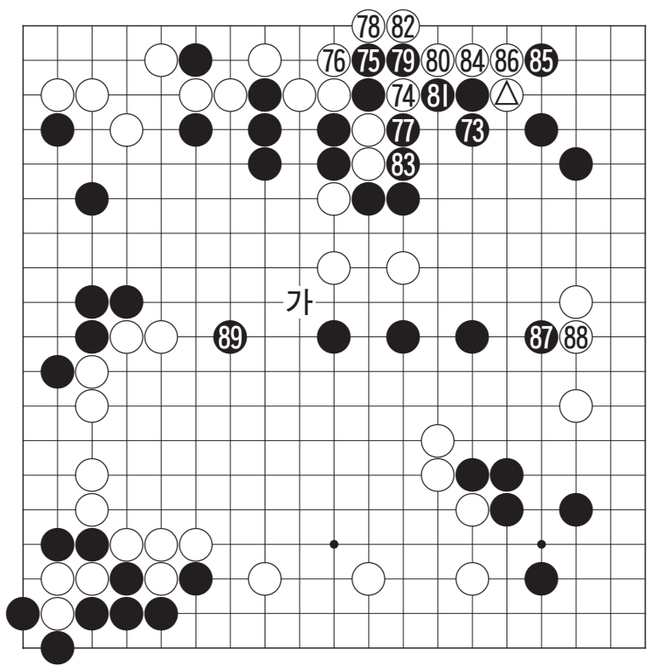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를 찾았던 관광객 수십명이 해수 범람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인터넷에는 네티즌의 추도의 글이 잇따랐다.

7일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나섰던 순천 효천고 학생들이 버스 전복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네티즌을 안타깝게 했다.

네티즌은 "지난해에도 지리산에서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안전 불감증이 만든 끔찍한 사고다", "즐겁게 떠난 수학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버리다니, 너무 슬픈 일이다. 부모님날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사고라 더 가슴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4일 인근 식당 CCTV에 녹화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해상 해수 범람 당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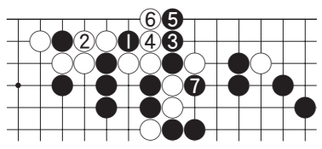


제4회 전남도지사배 전국아마최강전

시니어부 본선 2회전

박성균의 후회 5보(73~89)

白 박성균 7단 (강원) 黑 심재욱 6단 (광주)



〈참고도〉

백 △가 위급한 중에서도 관록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응수타진이었다. 심재욱 6단은 흑 73으로 늘어 꾹 참았는데 이것은 정수로 보이며 이 교환으로 인해 귀의 뒷맛을 얻어내고 있다.

흑 75는 국후 '참고도'의 흑 1로 먼저 끊는 것이 정수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 다음 3으로 내려서면 5로 1선 내려서는 묘수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7로 잡게 되는데 실전처럼 백 84까지 상변이 유린당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이득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백 84까지 대 바꿔치기가 이뤄졌는데 흑은 엄청난 두터움을 얻은 대신 백은 상변을 유린해 피차 둘만한 결과다.

흑 85로 두었을 때 무심코 백 86으로 이은 수가 박성균 7단이 두고 두고 후회한 대완착이 되었다. 이 수로는 당연히 '가'로 달아나야 했다는 것이다. 흑 89에 손이 와서는 흑이 드디어 우위를 확립한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차민수 4연승 무한질주

차민수 4단의 연승질주가 심상치않다. 차민수는 8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2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본선 4국에서 이슬아 초단을 상대로 186수 끝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를 포함해 차민수는 이 대회에서만 4연승을 기록 중이다.

차민수는 초반 이슬아의 맹공에 중앙 백대마를 내줄 뻔했지만 차분하게 위기에서 벗어나 승기를 잡았다.

차민수의 활약으로 여류팀은 초반부터 고전하는 양상이 됐다. 반면 최규병, 양재호, 서봉수, 조훈현 9단 등 아직 쟁쟁한 프로기사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시니어팀은 여유가 생겼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56>

I'm calling about the car

그 차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A : Hello.
B : I'm calling about the car. Is your car sold yet?
A : Yes, we sold it yesterday.
B : Okay, thanks.

A : 안녕하세요.
B : 그 차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차, 벌써 팔렸습니까?
A : 네, 어제 팔았는데요.
B :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 I'm calling about ~ : ~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 sold : 팔려버린
* 그 자리, 충원이 되었습니까?
= Is the job filled?
* 제 방 정리 끝났습니까?
= Is my room finished?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1156>

田中君この書類, 誰(だれ)が作ったんだい?

타나카군 이 서류 누가 만들었지?

A : 田中君この書類, 誰(だれ)が作ったんだい?
B : はい、私ですが。
A : 君, この計算(けいさん)間違(まちが)ってるぞ。
よく確認(かくにん)してから提出(ていしゅつ)しろって。
再三再四って言ってるだろう。
B : すみません。今後 氣を付けます。

A : 타나카군 이 서류 누가 만들었지?
B :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A : 자네, 이 계산 잘못됐잖아. 잘 확인하고 제출하라고, 재삼재사 말했잖아.
B :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書類(しょるい) : 서류
しろ : 해라(する의 명령)
再三再四(さいさんさいし) : 재삼재사(재삼 확인을 부탁할 때 쓰는 표현)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33>

市场卖水果吗?

시장에서 과일을 팝니까?

A: 市场卖水果吗?
shìchǎng mài shuǐguǒ ma
B: 卖。
mài
A: 你买了什么水果?
nǐ mǎi le shénme shuǐguǒ
B: 我买了香蕉和苹果。
wǒ mǎi le xiāngjiāo hé píngguǒ

A: 시장에서 과일을 팝니까?
B: 팝니다.
A: 무슨 과일을 샀습니까?
B: 바나나와 사과를 샀습니다.

水果 [shuǐguǒ] 과일
苹果 [píngguǒ] 사과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773>

以管窺天(이관규천)

써 이, 대롱 관, 엿볼 규, 하늘 천

이관규천(以管窺天)은 좁디좁은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엿본다는 뜻으로 좁은 식견으로 사물을 살피면 그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함을 비유한다. 의성(醫聖)으로 일컬어지는 편작은 기원전 5세기 전후 전국시대에 실존했던 인물로 맥진(脈診)의 시조로 추앙을 받는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편작의 신묘한 치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편작이 괵나라를 방문했을 때, 병을 앓던 태자가 갑자기 죽어 궁궐은 온통 초상집 분위기였다. 편작은 궁정의에게 태자의 사인(死因)을 직접 듣고 아직 관에 넣지 않은 태자의 맥을 짚어보고, 그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궁정의가 믿지 않자 편작은 "당신의 의술은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려 하고(以管窺天), 좁은 틈새로 전체의 무늬를 보려는 것과 같소" 라고 꾸짖었다. 과연 편작이 말하는 데로 태자를 살펴보니 귀가 울리고 코가 떨리는 소리가 났다. 이는 태자의 혈행이 아직 멎지 않고, 호흡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허약한 태자는 오늘날로 치면 쇼크에 의한 가사(假死)상태에 빠졌었던 것이다. 이 후 편작은 침술과 약으로 태자를 살려내자 사람들이 모두 '편작은 죽은 사람도 소생시킬 수 있다'고 경탄하였다. 그러나 편작은 "나는 죽지 않은 사람을 소생시켰을 뿐이다."고 말하였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